

- ◆… 간암은 원발성 간암과 전이성 간암으로…◆
- ◆… 대별할수 있다. 원발성 간암은 흔히 간경…◆
- ◆… 변증을 동반하나(80%) 임상증상이 있어서…◆
- ◆… 일단 발견되면 3개월내에 사망하는 악성…◆
- ◆… 종양으로 원인은 아직 불분명하다. 그러나…◆
- ◆… 역학적, 임상적으로 얻어진 결과에 의하면…◆
- ◆… 잘 알려진 B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B virus, 이하 HBV) 간염이외에도…◆
- ◆… 비A, 비B형 바이러스(Non A, Non B virus), mycotoxin(특히 aflatoxin), 알코올, …◆
- ◆… 간흡증증(특히 clonordris sinensis) 등…◆
- ◆… 이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

여 원발성 간암의 발생에 HBV 감염이 원인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강력히 지지해 주고 있다.

아직 HBV 감염이 원발성 간암을 일으키는 기전이나 또 HBV 보유후 얼마후에 간암으로 진전되는지는 확실치 않다.

현재까지 알려진 기전으로는 HBV에 감염되면 간염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계속적으로 증식해 간 세포의 염증 및 괴사를 일으키나 면역학적 기전에 의해 HBV 소실 및 조직 괴사를 종식시키지 못하면 만성화 되며 일단 HBV DNA 가 간세포 내로 융합되면 증식형의 HBV DNA는 간소내지 소실되어 조직내 염증 및 괴사가 감소 내지 소실되고,

가 HBeAg를 보유하고 있을 때, 감염률이 높으며, 유아시감염되면 장기 보유자가 될 확률이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 산모의 7%가 장기 HBV 보유자이고 이 중 40%가 HBeAg를 보유한다고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신생아 감염이 장기 바이러스 보유자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나아가 간암 발생에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남자에서 간암은 위암 다음으로 많은 악성 종양으로 남성암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원발성 간암은 임상 증상을 나타낼 시는 이미 진행된 상태로 매우 예후가 불량

肝

癌



金富成

<가톨릭醫大>
内科과장

予防·진단 및 치료동향

자의 발현빈도가 적고 간암의 발현빈도가 낮은 미국에서도 비 알코홀증에 의한 원발성 간암에서 HBsAg 양성을 60%로 보

융합된 형태의 HBV DNA를 가진 장기보유자 상태로 놓이게 된다. 이후 이런 형태의 간 세포만이 증식하다가 어떤 환

하며 초기에 발견이 힘들다. 그러나 근래 임상소견이외 이학적 검사, 특히 혈중 alpha-fetoprotein 검사와 여타가

출생시 肝炎백신의 投與가 무엇보다重要

최근 IL2·인터페론등 免疫療法試圖

고되고 있어 이러한 HBV 감염이 간암의 발생에 관여하리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러한 역학적 사실이외에도 최근 분자생물학(molecular biology)의 발전과 아울러 B형간염 바이러스 핵산(HBV DNA)의 구조가 밝혀지고 환자의 조직과 혈청에서 B형간염바이러스의 핵산의 겹출이 가능해지면서 간암 조직세포에서 B형간염 바이러스 핵산이 세포내 융합(integration)되어 있다는 사실들이 발견되

경적인 여건에 의해 간세포가 활발히 분열하여 세포내 변태(transformation)가 일어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는 동안 세포내 융합된 HBV를 가진 간세포들이 자율적인 세포성장(autonomous cell growth)을 일으켜 간암을 유발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기간은 확실치 않으나 감염후 2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 HBV 보유자의 발생은 성인 감염시 10%에 불과하나 모아감염 특히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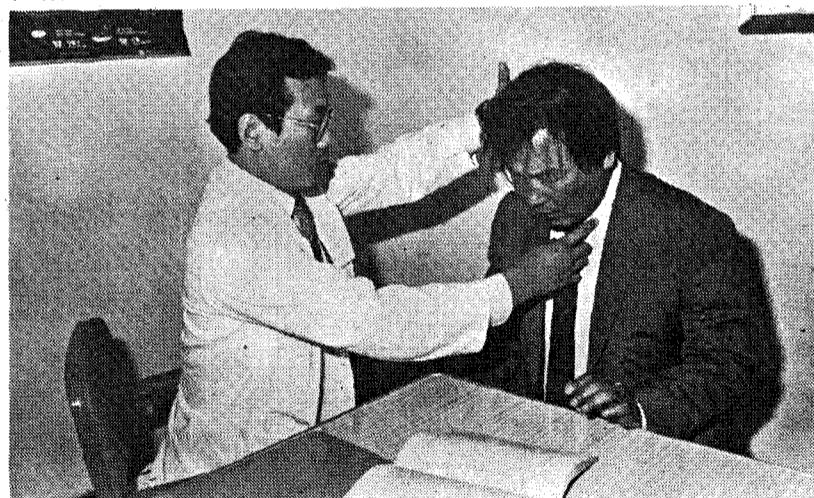
지 영상 진단법, (동위원소 검사, 간초음파검사, 전산화단층촬영검사, 핵 자기 공명상 : MRI, 간동맥 조영 검사)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일정 기간 간격으로 반복 검사함으로서 진행암은 물론 직경 2cm 이하의 미소간암의 검출이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초음파유도하에 경피세침 생검으로 확진이 가능해져 초기 발견에 의한 간절제술이 가능하여졌다. 또한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된 간암의 경우도 항암제 요법이외에 간동맥 색저술 등이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 또 IL2(Interlukin) 및 Interferon 투여등 면역요법이 시도되고 있다.

조기 발견에 의한 간절제술이 가능할 경우는 한계에 국한되어 있어야 하므로 흔치 않으나 5년 생존율이 20~30%에 이르며, 절제술은 불가능하나 간동맥 혈전술이 가능할 경우 1년 생존율이 44%, 2년 생존율은 42%에 이른다고 이웃 일본에서는 좋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종상이 없을 시 여러 복합적인 검사를 통해 초기에 간암을 발견하여 치료하자는 경향이 있다. 실제 간경변증이 있는 경우, HBsAg이 양

성이면서 만성간염의 기원력이 있는 경우 또 간암의 가족력이 있으면서 만성 바이러스 보유자를 대상으로 2~3개월간 격으로 혈중 alpha-fetoprotein과 초음파내지 전산화단층촬영을 반복하여 간암발생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간암은 초기에 문맥계로 전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며 일단 문맥 정맥에 의한 혈전을 일으키면 미소간암이라 할지라도 간절제나 간동맥 색전술이 불가능하다. 단발성인지(unicentric), 다발성(multicentric)인지 다시 말해 한곳에서 번지는 것인지 또는 여러곳에서 발생되는데 발생시 기적인 차이로 먼저 발생되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인지는 확실치는 않으므로 조기간암 발견에 의한 간절제술에도 문제 가 야기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관점에서 구미 각국에서는 미소간암 뿐 아니라 간암의 전구단계라고 생각되는 간경변증에서까지도 간이식이 시행되고 있으며, 1년 생존율이 70.9~90%에 이르며 5년 생존율도 간암이 동반되기 전에 실시하면 일년생존율과 거의 동일하다하여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 국내의 의료진으로 이러한 간이식은 가능하나, 죽음의 정의가 모호하고 사회적으로 간이식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이식에 필요한 장기를 얻기 힘든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HBV 의 장기 보유자가 많은 나라에서는 B형간염의 예방 즉 출생시 간염백신의 투여가 근본적인 간암의 예방 대책이라 는 것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HBV의 장기 보유자가 많은 나라에서는 B형간염의 예방, 즉 출생시 간염백신의 투여가 근본적인 간암의 예방대책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사진은記事특정사실과 관련없음)

휴대용 혈당측정기는 환자 및 일반인이 병원에 가는 번거로움이 없이 가정, 직장 및 여행 중 본인 스스로 혈당치를 측정하고 당뇨병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소형 혈당측정기입니다.

특징:

- 한방울의 혈액(血液)으로 측정(測定) 됩니다.
- 측정범위: 0~1,000mg/dl
물로 닦을 필요가 없음
- 날짜, 회수, 혈당치가 동시 100회까지 기억 재생됨
- 검사 비용이 적게 들고, 간편한 휴대가 됩니다.
- 검사 시험지(Strip)을 냉장고 보관이 아닌 실온 보관으로 변질될 우려가 없음.

제조원: DIC Kyoto DAIICHI

판매원: 정우양행

서울시중구충무로 3가 24-14 (경북빌딩 101호)

전화: 276-0277

276-0278

*당뇨신문

“소망”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바랍니다.

보내실 곳: “대한당뇨협회”

서울시중구충무로 3가 24-14

경북빌딩 101호

TEL: 265-9822